



# 뷔페식당 조리법 및 종업원 교육 교본에 관한 영업비밀 성 판단 항소심 사건

20

Buffets, Inc. v. Klinke, 73 F.3d 965 (1996)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 9 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94-36222
판결 일자	1996. 1. 16.	판결 결과	원심 유지
원고 (항소인)	뷔페스 (Buffets, Inc.), 미네소타 (Minnesota) 회사; 에버그린 뷔페스 (Evergreen Buffets, Inc.), 오레곤 (Oregon) 회사		
피고 (피항소인)	폴 클린키 (Paul Klinke); 캐롤 클린키 (Carol Klinke); 그레니스 뷔페스 (Granny's Buffets, Inc.) 워싱턴 (Washington) 회사; 마크 밀러 (Mark Miller)		
참조 법령	RCW § 19.108.010(4) <sup>1)</sup> , 워싱턴 주 소비자 보호법 (Washington Consumer Protection Law)		
참조 판례	Fed.R.Civ.P. 52(a). Price v. United States Navy, 39 F.3d 1011,1021 (9th Cir. 1994), Saltarelli v. Bob Baker Group Medical Trust, 35 F.3d 382, 384 (9th Cir. 1994), Boeing Co. v. Sierracin Corp., 108 Wash.2d 38, 738 P.2d 665 (1987), Haner v. Quincy Farm Chemicals, 97 Wash.2d 753, 649 P.2d 828 (1982)		
영업비밀	뷔페식당 조리법 및 종업원 교육 교본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조리법, 교본, 참신성, 경제적 가치		

## 02 사건 개요

원고 뷔페스는 전국적인 저가 뷔페 식당 체인인 '올드 컨트리 뷔페'(이하 'OCB')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핵심창업자 중 한 명인 스콧은 다른 뷔페 식당들과 달리 소량 요리 관행을 통한 신선함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1) 원문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19.108.010> / (4)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a)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b)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

스콧은 원고 에버그린 뷔페스를 새로 설립하였고 그의 동업자는 피고 밀러를 고용하여 일하게 했으나, 피고 밀러는 1991년 재정 오용 논란으로 해고당했다.

---

피고 클린키들은 1990년 OCB 식당 중 하나를 둘러보고 스콧에게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OCB는 가맹점을 내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 클린키들은 자신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비클을 OCB 식당 중 하나에서 일하게 하였고, 피고 클린키들의 아들 그렉을 OCB 식당 중 하나에 요리사로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렉은 그의 실제 주거나, 부모 식당에서의 요리사 경험, 그리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밀러는 스콧의 전 행정사원에게 종업원 교본 제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지방법원은 새 교본이 OCB 교본을 거의 복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밀러는 조리법 한 상자를 전문 등사자에게 다시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했는데 지방법원은 이들을 'OCB 조리법'이라고 설명했다.

---

피고 클린키들은 피고 그래니스 식당을 열었는데 종업원 교육에 해당 복제 교본을 사용하였고, 음식 준비에 OCB 조리법들을 사용했다고 지방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 클린키들의 부정행위가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조리법과 교본들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본 사건은 이에 원고가 항소한 사건이다.

---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참신성은 영업비밀의 요건이 아니다.

조리법들이 충분히 획득 가능한 것인지를 오인하여 단순히 해당 조리법들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였다.

나타나지 않음

‘비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보안 수단들이 적절했다는 판단도 내려졌어야 한다.

피고들이 교본을 불법 취득하였기 때문에 보안 수단들이 합리적이었는지는 무관하다.

---

---

비배심 심리<sup>2)</sup>에서 판사의 사실인정은 명확한 오류가 없는 한 파기되지 않고 최대한 존중된다.

---

해당 조리법과 공정이 잘 알려진 미국식 음식에 기원한 것들이고 혁신적인 구체성이 있긴 하지만 타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며, 단순히 조리법에 포함된 요소나 조리법이 기초한 과거의 조리법들이 충분히 획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리법 자체가 충분히 획득 가능한 것이었다.

---

원고는 OCB의 조리법이 경쟁사의 것보다 더 우월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자신의 조리법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OCB의 조리법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OCB의 조리법은 요리사들을 위해 간소화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음식들이 매우 구체적인 조리법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그 번역본에 기초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OCB의 조리법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

원고의 조리법은 신규성(novelty)과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비밀관리성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 교육 교본도 종업원들이 계속 소지하여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고, 교본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종업원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타인의 접근 예방을 위한 보안절차들을 종업원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교본들이 비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 노력이 투입된 대상이 아니었다.

---

교본들은 외식 업계의 뻔한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본들이 영업비밀이 아니었다는 지방법원 판단을 유지한다.

---

위싱턴 소비자보호법의 소에 대한 피고 클린키들의 약식판결 신청의 경우 피고 클린키들의 행위가 비윤리적이지는 하나 원고들이 같은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약식판결 신청 승인도 유지한다.

---

따라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

---

---

2)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말한다.

## 05 Key Point

---

위싱턴주의 경우에도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 채택하고 있어, 법 규정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다른 주와 유사하나, 이 사건 판례와 같이 주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도 판례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과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및 비밀 관리성을 부정한 사례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보호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